

1년동안 모아온 기사 정리해봄

o o



네이버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기사를 보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이용해서 링크를 저장해뒀었음

한 해가 지나고 보니 모아둔 기사가 제법 많아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음에서 정리하여 로깅에 올려봄. 주딱 신문 정리한거 생각도 나고 해서...

이렇게보니 개량반동과 그냥반동의 끔찍한 혼종이네..

나도 내 안의 반동을 버리지 못한 어쩔 수 없는 리버럴반동인가봐..

<http://naver.me/FcOXC602> 우리가 알던 '보통 날씨'가 바뀐다...오늘 '새 평년값' 공개

<http://naver.me/GZAZ4MEa> 모성은 '나'를 미치게 했다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068894?cde=news_edit 그토록 보수적인 아일랜드를 바꾸고... '기후정의' 앞장서다

<http://naver.me/501srtext> "미국도 중국도 강요 않는데, 언론이 미국편을 강요"

<http://naver.me/5EQ4SOOC>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... 우리가 1번도 2번도 안 찍은 이유

<http://naver.me/5L3qW1ow> 응급실서 확인한 '조용한 학살'... 20대 여성 자살 시도 34% 늘었다

<http://naver.me/FU31PgWp> '원폭만큼 치명적인' 미군의 부산항 세균실험

<http://naver.me/Gw57JA11> 여성 용접공으로 시작해 부당한 해고에 맞선 35년의 이야기, 김진숙을 만나다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995182.html?fbclid=IwAR1FLvcAeTDJ9jkDoDNUHkib2t0gcdwk7eCarzDkMulOJNFbyvUw9DMSi30 미 대통령 중 가장 '친노조' ... 노동권 강화해 중산층 회복 선언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523033900004?section=news&fbclid=IwAR11oB3HSGxy6QjCIY46cL0WxG61Sbf-CBR_wcbhUgdDb7XuVw8OryGeb3k "국내 산재 3건 중 2건은 은폐...위험의 외주화 실재"

<http://naver.me/xkxptayw> "연대보다 내 것 먼저"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[전환기의 노동, 길을 묻다]

<http://naver.me/59jK9jFP> 사라지는 부품을 만드는 내연기관 노동자들 [기후위기 시대,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(1)]

<http://naver.me/G14ky04C> 세월호 참사 7년 지났지만, 해경 지휘부의 '무책임' '조작'은 현재진행형

<http://naver.me/5zJwAAuA> [새로운책]타인의 얼굴에 나의 얼굴을 겹쳐보려는 마음 -〈별것 아닌 선의〉

<http://naver.me/GhEpQ3uH> 산재는 왜 반복될까,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3명이 답하다

<http://naver.me/xIJTEanI> '공정'은 어떻게 그들의 무기가 되었나

<http://naver.me/FhAntJjO> 박정희, 김영삼, 김대중 정부의 조합 '97년 체제'

<https://www.pressian.com/pages/articles/2021030811004046927> 프레시안 - '보편적 복지국가'가 먼저다.

<http://naver.me/FBwLbv1h> "이 짝 물고 만들어가는" 장혜영의 균열

<http://naver.me/GPrWerip> 고민정 "아동학대 풀려고 복지위로 옮겼다... 여가부 폐지? 무책임" [우리 모임을 소개합니다]

<https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993510.html> [세상읽기] 위선, 악이 선에 바치는 경배 / 조형근

<http://laborhealth.or.kr/39982> [7월 이달의 기업살인] ‘폭염’ 때문에 사망... 절반 가까이는 이곳에서 나왔다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aver?mode=LSD&shm&sid1=001&oid=032&aid=0003092717&rankingType=RANKING> [단독]맘스터치, 가맹점주모임 대표에 “노동운동가냐...영업 못하게 할 것” 겁박

<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women/1007561.html> [단독] 직장여성 5년간 유산 26만건...산재 인정은 단 3건뿐이었다

https://www.khan.co.kr/opinion/column/article/202108230300015/?utm_source=twitter&utm_medium=social_share [시선] 아프간 난민, 한국 오지 마라

<http://naver.me/GHE4srZs> 진짜 '특권 귀족' 최재형의 가짜 '귀족 노조' 짚밧기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aver?mode=LSDl=shm&sid1=001&oid=028&aid=0002558222&rankingType=RANKING> 지구온난화 계속되면 엘니뇨 사라진다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aver?mode=LSDl=shm&sid1=001&oid=047&aid=0002325440&rankingType=RANKING> '꼬꼬무'만큼 소름 돋는 실화... 이 14명을 기억해야 합니다

https://m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010457.html 어쭙잖은 세대 영합보다 '대놓고 꼰대'기 낫디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aver?mode=LSDl=shm&sid1=001&oid=036&aid=0000045352&rankingType=RANKING> 난민의 곁에 있다는 것

<http://rp.jinbo.net/change/73411> 금속노조 공동결정제 요구, 무엇이 문제인가

<http://naver.me/5h3q4wxi> 지구 온도 1.5도 상승해도 되돌릴 기회 있다

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774874&PAGE_CD=ET001&BLCK_NO=1&CMPT_CD=T0016 비정규직 차별은 '임금'뿐? 윤석열 후보가 놓친 것들

<http://naver.me/x8ICEzS> 청년 내세운 조선일보 '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리기' 점입가경

<https://www.khan.co.kr/opinion/column/article/202108250300025> [특파원 칼럼] 빈부격차와 공동부유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012976.html#csidx09694560be9d4d194c83936589d29ab 생존력 강한 진보정치 간판스타 심상정...소수정당 꼬리표 못 떼

<http://naver.me/57wGtDYb> [그사람] 선의와 열정의 균형... 35년 여성운동가 윤정숙

<http://naver.me/F36VRvsD> [단독]관광객 안내 한다더니...고3 실습생, '잠수작업'하다 사망

<http://naver.me/FOv2PjYr> 주객 바뀐 ‘시간선택제 일자리’...스벅 ‘다회용컵 이벤트’서 터졌다

<http://naver.me/FOa8lDxF> ‘고무 조각’ 하나 강제하지 않는 법, 20대 외벽청소 노동자를 죽였다

<http://naver.me/GBfseiH0> [법정B컷]"3년째 소송중"...해고 노동자가 겪는 일

<http://naver.me/xw64rgbn> 이재명과 노무현...열정, 무모함 그리고 싸움의 기술

<https://www.hankyung.com/international/article/202110107087i> "폭망 혹은 전화위복"...형다에 대한 두가지 시선 [노경목의 미래노트]

<http://naver.me/FmgdtFsm> 이재명, “변방사또”에서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

<https://www.hani.co.kr/arti/culture/book/1015276.html> 금속노조 20년 깃발 아래 ‘드센 언니’들의 또다른 투쟁기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308/0000029576?cde=news_edit 한국 언론, 편파적인 것보다 게으른 게 더 문제다

<http://naver.me/FQazTWzW> [특파원 리포트] 테슬라와 기도투자

<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103813> 이름은 교육, 실제로는 노동...그 틈새로 사고 반복 [현장실습, 교육인가 노동인가]

<http://naver.me/xv0sOvyu> ‘일자’ 취급받던 이재명, 민주당과 결합할 수 있을까

<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564078> [단독] 트럭시위에 놀란 스타벅스 “공격적 신규채용, 임금개선”

<http://www.kmib.co.kr/issue/poortable/story1.asp> 국민일보 - 빈자의 식탁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sec=sid1=102&oid=032&aid=0003104095> 또 다른 '청기훈'들은 아직 싸우고 있다

https://content.v.daum.net/v/khSVseb3fp?x_imp=dG9yb3NfY2xvdWRfYWxwaGE%3D&x_hk=NDUwMjU2YmYwYjdkNmVmOTE1 우리나라에서만 '억대' 연봉 받는 의외의 직업

<http://naver.me/GXEXGnNW> “40년 된 조항서 단서 찾았다” 구글 역대급 제재 가능했던 이유

<http://naver.me/5Feb254J> “‘정의로운 친환경 전환’ 핵심은 실직 구제와 정규직 확대”

<https://www.pressian.com/pages/articles/2021102113512582150> "코로나 2년 '간호사 영웅'은 이제 그만, 병원 떠나지 않게 해달라"

<http://naver.me/55INIM4e> [홍석만의 경제 매뉴얼] 공급망 교란·공급부족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

<http://www.newscham.net/news/view.php?board=news&nid=106314> 여성 ‘태움’하는 자본주의, ‘돌봄 혁명’으로 바꿉니다

<http://naver.me/FMAkaq9z> ‘더러운 공장’ 던킨, 민주노총·언론 탓하면 “대가 준다” 점주 회유

<http://naver.me/Gz5PRXNe> 이제 막 출범한 기시다 내각, 지지율은 침몰 중?

<http://naver.me/xbwWyQpy> '김귀정'의 엄마는 50년째 한 자리서 야채를 판다

<http://naver.me/FbRAvdhl> '기업 소유 주택 국유화' 베를린의 실험, 법적으로 문제 없나

<https://www.vop.co.kr/A00001601317.html> [기고] 곧 취업할 학생들에게 노조는 '불순세력'인가요?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017254.html '끝나지 않은 학살의 기억'... 망언이 권력을 얻을 때

<https://www.beminor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203> 장애인들이 지하철 막아서 못 살게 다고 서울시청에 전화해 주세요

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110300916001/?utm_source=twitter&utm_medium=social_share 치아에 새겨진 격차, '이'이를 어찌나

<http://naver.me/xdlYPuUc> 스타벅스 시위에서 노동조합이 읽어야 할 것

<http://naver.me/xgaRrUzY> 이낙연의 짧지만 굵은 지지연설 "야당보다 더 겸손합니다"

<http://naver.me/GmFyBfgL> 두려운 남자들, 설거지론의 역설 [좋은데, 싫었습니다]

<http://naver.me/FmgJUVTH> [특파원 리포트] "채권시장... 편히 잠들기를"

<http://naver.me/5PSzOq15> "씩씩한 군인이 돼 베트남 없애겠다"던 노회찬 어린이, 어찌다?

<http://naver.me/GPrh0Dcq> 뉴스 불신의 시대, 기레기를 피하는 방법

<http://naver.me/IDBzUS2V> 72살 '태일이 친구'는 51년 전 불끄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

<http://naver.me/5eGLjGG0> 보수의 승리 공식 찾았다... 미국 민주당 필패의 위기

<http://naver.me/FgiF3enB> "이러다 죽어요"라던 고졸 노동자, 11m 아래로 떨어졌다

<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110190600015> [절반의 한국]

<http://naver.me/xmqLiTOI> 밥하는, 동네, 아줌마... 앵커 브리핑에 눈물이 쏟아졌다 [학교비정규직, 목소리를 내다]

<http://naver.me/5eeJikeC> 라이더들 죽어나갈 때, 기업은 막대한 이익 끌어모았다

<http://naver.me/GZnYPSHx> 오징어게임에는 한강의 기적이 없다

<http://naver.me/GqJGCDqc>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밀리는 세 가지 이유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l=shm&sid1=101&oid=005&aid=0001486758> "국토보유세 맹점 많고 중부세 유지해야... 보편증세 필요"

<http://naver.me/FOXJ7LOV> 비록 쪽방촌이지만 우리에게겐 삶의 터전입니다·힐튼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·

<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labor/1021027.html> "재벌회장 불법파견 죄 물어라... 나에 대한 중형도 달게 받겠다"

<http://naver.me/xR63VeTM> 소설가 조해진이 <물음을 위한 물음>을 권하는 이유

<http://naver.me/xiXrqJUf> 최승호가 제시한 공영언론 살리는 두 가지 방법

<http://naver.me/F8G6bUMh> 20대가 말한다, '능력주의'와 '공정'

<http://naver.me/GPvx4AaC> [여여한 독서] 억울하면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하자

<https://www.ildaro.com/9225> 세종호텔 정리해고가 '여성 노동'의 문제인 이유

<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labor/985666.html> 투사 시인 송경동의 꿈

<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labor/1025104.html>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"당일 배송 거부" ...파업 돌입

<http://naver.me/x5cSJ0sM> [자막뉴스] 칠레 '세계 최연소' MZ세대 대통령 탄생...35세 보리치

<http://naver.me/FRrLk83W> '삼프로TV'는 어떻게 지난 대선 손석희의 자리를 대체했나 [위근우의 리플레이]